



## 그들의 고향에서 문학 향기에 빠져 볼까?

김유정 · 조병화 · 정지용 · 천상병 문학축제 이어져

봄. 꽃은 산하를 머금고, 시인은 꽃을 노래하고... 꽃을 보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사랑을 하면 누구나 시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근대 문학사를 대표하는 문호들의 고향에서는 지금 문학 축제의 열기가 뜨겁다. 그 봄 향기 문학 향기 가득한 문학축제 속으로 가족 · 연인과 함께 떠나보자. 지난해 하루 1천 여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성공적인 지역 문학축제로 자리매김한 '김유정 문학제'가 4월 22-24일 춘천 김유정문학촌 등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시인 조병화를 기리는 '꿈과 사랑의 시숙제', 정지용 문학개관축하를 겸한 정지용문학축제, 천상병문학제 등이 다음달까지 계속된다.

**# 동양의 안젤센을 다시 본다. 김유정문학제**(4월 22-24일) = '봄봄' '동백꽃' 등 동화같은 단편소설을 남긴 김유정(1908-1937)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김유정문학제가 춘천 김유정문학촌과 국립 춘천박물관에서 열린다. 문학제는 김유정의 소설 낭송대회, 김유정 작품 속 1900년대의 삶 체험, 시 낭송대회 등으로 꾸며진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김유정 문학현장 답사기행을 겸하는 김유정 문학열차. 이는 22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청량리를 출발, 오전 11시 40분 춘천 김유정역에 도착한 뒤 소설적 배경이 된 강원도 춘천 실레마을 일대를 둘러본 뒤 이날 저녁 다시 열차로 서울 청량리역으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이다. 문학열차 참가비는 3만원, 이와 함께 닭싸움, 민속놀이, 풍물장터 등도 열린다. (033)261-4650

**# 사랑과 꽃을 노래한 시인, 조병화문학축제**(5월 4-10일) = 시인 조병화(1921-2003)의 고향인 경기도 안성에 자리한 편운문학관은



시인 조병화의 시를 수화로 표현하고 있다.

올해 이름을 조병화문학관으로 개칭하고 '꿈과 사랑의 시숙제'를 마련한다. 문학축제는 5월 4일 시인 허영자, 오세영, 이가림 씨 등이 참여해 '조병화를 말한다'라는 시인을 추억하는 자리로 막을 올린다.

10일까지 열리는 축제 기간에 시낭송, 다 함께 직접 시 한수 써보기, 시집 꾸미기 등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며 시인 조병화의 시 생애 사진전도 열린다. 이와 함께 조병화 시집 52권과 시인의 유품 등이 상설 전시된다. (031)674-0307

**# 영원한 수채화 속 고향의 주인공, 정지용문학제**(5월 13-15일) = 시인 정지용(1902-1950)의 고향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정지용문학관' 개관을 겸한 정지용문학축제는 정지용문학관을 포함한 옥천 전역에서 5월 13-15일 열린다. 지용 시화전, 시 '항수'를 모티브로 한 향수 사진전, 문화의 거리 작품 전시, 지용문학 캠프, 판화작가 등도 마련된다. 전국 청소년 연합 재즈 프로그램, 남내시조경향대회, 수석 공예품 전시회 등도 열린다. (043)730-3081

**# 한국의 도연명을 꿈꿨던 시인, 천상병문학제**(5월 21-22일) = '귀천'의 시인 천상병(1930-1993)의 시비가 있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일대에서는 제3회 천상병문학제가 5월 21-22일 열린다. 천상병 문학 세미나, 중 · 고생 백일장, 천상병 시를 모티브로 한 공연 등이 마련된다. 22일 오전 귀천 시비 앞에서 열리는 시 낭송회에는 일반인들이 참가해 천상병 시인의 시 혹은 자신의 애송시를 낭송할 수 있다. (02)720-9875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 공연

## 해인사 '봉축 음악법회' 연다

韓 · 中 · 印 · 日 아티스트 참가  
5월 7일 '화엄만다라' 협연

한국불교의 성지 가야산 합천 해인사가 창건 이래 1200년 만에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첫 음악법회 '화엄만다라'를 5월 7일 오후 7시에 갖는다.

화엄만다라는 인동창이 디자인한 새로운 개념의 창작음악으로 불교문화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 인도의 대표적인 불교 음악가와 스님, 신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협연곡이다. '우리는 하나'라는 진리를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하나가 되어 연주하는 화엄만다라는 어떠한 체계나 규율이 없는 마음 깊숙이 우리나오는 일체감을 형성케 할 것이다. 게다가 스님의 법고, 범종, 목어, 운판 등 사물 연주로 시작되는 예불과 조계종 종정이며 해인총림 방장인 법전 스님의 법

문어 아우러지면서 새로운 불교문화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임동창(한국, 총연출), 밀린드 다테(인도), 투산차양(중국), 마사야(일본) 등 대표적인 불교국가 4명의 아티스트들이 협연하며, 이봉주 유기장(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이 특별히 제작한 100여개의 우리나라 전통 '방짜유기'가 새로운 악기로써 살아있는 한국적 소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또, 이생강(대금), 전인삼(판소리), 변진심(징가) 등이 참여하여, 전통적인 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해인사는 음악법회 후 자연스럽게 스님과 차 한잔을 나누며 명상과 참선으로 마음을 정화시키는 1박2일의 템플스테이도 준비했다. (055) 934-3110, (02)2187-6222 배자선 기자 jsun@buddhapia.com



## 한반도는 하나 독도는 우리 땅

피묻은 약패 감독 표광 출연 리영호 등급 전체관람가

국내 최초로 북한 영화가 상영돼 영화팬들의 가슴에 봄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4월 28일 개막되는 2006전주국제영화제에 소개되는 '피묻은 약패'가 바로 그것.

평화로운 독도는 왜곡의 침략으로 축대밭이 되고, 천무봉은 세 아들(석조, 석파, 석해)에게 국보인 약패(지도)를 나눠주며 독도를 지키라고 유언한다. 일본군의 침략에 가족을 잃은 삼형제는 조국과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아 끝끝내 독도를 지켜낸다.

독도의 유려한 풍광과 대역없이 스텝트를 해내는 일본군과의 결투장면은 투박하지만 생생한 현장감을 전해준다. 특히 영화 속에는 '북한판 독도 주제'라고 불릴 만한 노래가 삽입되어,

독도에 대한 애정과 민족의 자긍심만큼은 '남북한'이라는 서로 다른 이념을 넘어 '민족'이라는 공통분모를 보여주고 있다. 영화는 또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약패의 비밀을 따라가는 과정의 재미도 엿볼 수 있고 북한의 액션스타 리영호가 열연하여 오락적 즐거움도 배가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피묻은 약패'의 상영은 다시금 우리의 역사의를 고취시키게하는 작품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노병철 기자

### 알림

## 2005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미국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역사+문화체험

본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교생/중학생/고등학생
- 기간: 7월 28일-8월 18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3월 21일-5월 10일
- 장소: 하와이 무왕사 문화원
- 주최: 현대불교신문
- 협찬: (재)보덕학회

####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 원어민 선생님의 총 60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원어민 교사와 역사 문화지역을 함께 탐방하며 회화를 실제 상황에 적용.
- 문화체험 - 폴리네시아민속춤 및 공연관람,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올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라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 한인 이민의 땅서린 사탕수수농장 하와이 플랜테이션 방문, 세계대전 격전지 진주만 관람, 전 세계 유물을 한곳에 모아 놓은 비숍박물관 관람.
- 해양스포츠 - 와이키키 해변 수영,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험, 크루즈여행, 잠수함 및 오토캠핑.

\* 지난해 참가자에게는 와이키키공항 원주면 체험, 쿠파로아목장 승마체험, 워터파크 등 별도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문의: 현대불교신문 02-722-4162-3, 010-95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관세음응신도' 축광액자



어둠 속에서도 연녹색의 신비스런 빛을 발하는 관세음응신도 축광액자. 주아는 물론 물속에서도 발광하므로 어느 곳이나 여러분께 축복의 빛을 전한다. 모든 중생의 애환을 대자대비로 거두어 주시고 중생의 근기에 맞게 32 응신으로 화현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의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크기 31.5mm×58.5mm, 가격 1만5천원. (02)732-1520

### 전시

## 봄맞이 불교 사진전 풍성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 전제우 회장 작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살 큰스님'.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를 소재로 한 사진전시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국립진주박물관은 '사찰꽃살문사 진전'을 5월 29일까지 연다. 불교 사진 전문가로 알려진 관조 스님이 촬영한 30여점의 꽃살문을 선보이는 자리다. 통도사, 쌍계사, 선암사, 범어사 등 색채와 조각 면에서 예술성이 뛰어난 사찰의 꽃살문을 만날 수 있다. (055)742-5951

사진작가 이완교씨는 20-26일 인사아트센터에서 '피안-니르바나' 사진전을 연다. 산, 나무, 풀 등 자연을 배경으로 '피안'의 세계를 카메라 앵글에 담은 작품이 공개되는 전시회다. 작가가 참선수행과 선서를 접하며 떠올린 이미지를 몽환적으로 표현한 작품 20여점을 접할 수 있다. (02)736-1020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회장 전제우)는 제 10회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사진 전시회를 4차례에 걸쳐 연다. 작품은 서울 충무로 후지포토씨롱(5월 2-7일), 서울 우이동 도선사(5월 8-10일), 삼성동 봉은사(5월 11-16일), 대구 관음사(5월 17-23일)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02)2266-0302

부천 석왕사 사진동우회 심상(회장 김동선)은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5월 14-15일 석왕사에서 16번째 전시회를 연다. 사찰 안의 풍경과 일상 등을 담은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017)355-2811

강신재 기자

## 자유분방한 현대 수묵의 멋

20~26일 돈여 스님 선사화전

선화와 불교조각 등 다양한 불교미술 작품을 선보여온 석인 돈여 스님의 개인전이 서울과 전주에서 잇따라 마련된다.

서울 전시는 선사화를 중심으로 4월 20-26일 법륜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문인화 느낌의 회화적인 글씨와 자유분방한 먹의 흔적이 살아있는 그림 40여점이 공개된다. 5월 13일-19일 전주 전북 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전주 전시에서는 선사화를 비롯해 다구 등 도예 작품도 선보인다.

미술평론가 윤태석씨는 "현대적인 느낌을 살린 자유로운 수묵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63)246-0933



돈여 스님 작 '기룡빈가'.

강신재 기자

### 20면 상식 퍼즐 정답

낙지	소화기		
산대금	인생		
사족	사		
구사일생	고		
감리	락		
로불국정토			
수소사지	구		